

지역 소식통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준비 완료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2022년 1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해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지난 16일 읍·면 업무담당자 교육을 끝으로 장학생 선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5주간이며, 선발인원은 반값 등록금 1,000명, 다자녀장학금 200명, 특기장학금 30명, 대학교 비전학 창업·취업학원비지원금 10명으로 총 1,240명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으로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부모 모두가 1년 이상 연속하여 부안군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부모 모두가 3년 이상 연속하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장학금 접수신청은 평일 기준으로 학생의 부모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으며,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민원콜센터(1588-7719) 또는 읍·면사무 총무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본격 봄 손님 맞이 나서

서해바다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이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지난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원면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이 최근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은 데크 25면과 글램핑장 9개소, 샤워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개수대, 물놀이 시설, 트램펄린, 갯벌 생태 자전거 탐방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다.

또 글램핑장이 조성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인근에는 고창탐사트갯벌센터, 구시포해수욕장, 비탄공원, 동호해수욕장 명품 숲길 경관조형 등 고창의 여러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어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최우수관광마을 선정 수상

고창 운곡마을, 유엔세계관광기구 기념패... 세계네트워크 활동 개시

전북 고창군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 '세계최우수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 선정 기념패를 전달받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기념패는 지난해 12월2일 세계관광기구로부터 최우수관광마을에 선정된 세계 32개국 44개 마을에 세계관광기구가 전달하는 패로 44개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된 운곡마을에도 국제우편을 통해 기념패가 전달됐다.

기념패는 최우수관광마을 로고를 형상화해 제작됐고, 운곡마을(Un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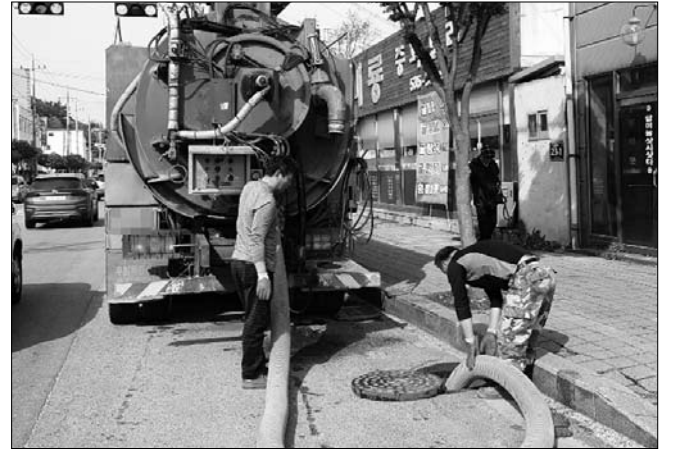


Village)라고 새겨져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고창운곡읍지생태관광협회 관계자들은 기념패를 전달받고 기념 촬영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으며, 앞으로의 운곡읍지와 마을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운곡마을은 오는 31일 열리는 세계최우수관광마을 네트워크 첫 온라인미팅의 참석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특별한 기념패까지 받은 감회가 한층 새롭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주는 고인돌·운곡마을은 지속가능한 관광문화에 앞장서 국제적으로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가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

시민 불편 해소·피해방지 '총력'

정읍시, 대인·신태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정읍시가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

노후관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배수 불량으로 침수 원인이 된다. 특히 땅 꺼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2차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개량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지 주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억원을 투입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6억4,800만원을 투입해 태인면 일원 13.8km와 신태인읍(남부) 25.7km, 신태인읍(북부) 13.3km 등의 노후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CCITV와 육안검사 등의 조사를 통해 하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관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된 구간은 긴급 복구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개량 효과가 확실한 관로 교체 위주로 시공하고, 지장물과 교통 영향 등 교체가 불가능한 곳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굴착 공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비 확보를 통해 전면 또는 부분 보수를 실시하고 하수의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으로 하수도 시설물 점검을 통해 하수 정체로 인한 악취가 있는 구간에 대해 준설작업을 실시해 시민의 보건 위생도 도모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정읍시, 724명 대상... 사고 시 최대 3000만원 보상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최초로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단체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연간 보험료는 2만원이며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8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24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천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년 간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매년 2회 1인당 10

만원의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1인당 5만6,000원의 보수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 국내·외 연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워킹숍 등을 통해 시설종사자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개남 장군' 학술대회 열려

정읍시가 주최하고 김개남과 상수산이 주관한 '김개남 장군 학술대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시의회 의장, 박병수 원광대 총장,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동학 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사료 부족으로 인한 연구의 제약으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한 김개남 장군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자료 발굴 부족으로 김개남 장군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김개남의 위상 고찰과 의미를 일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학술대회는 박병수 원광대 총장의

'동학농민혁명과 김개남'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총 2부에 걸쳐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김봉근 원광대 교수와 일본 이오누에 가즈오 후카이도대 교수, 이선아 전북대 교수, 최규상 원광대 교수, 이진우 한양대 석좌교수,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등 6명이 연구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통해 김개남 장군과 태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김개남 장군 고택터의 문화적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고택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종합토론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김개남 장군 자료 발굴 노력을 강조했다며, 동시에 자료에 대한 해석을 바탕



으로 향후 김개남 장군 선양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정읍의 역사 인물인 김개남 장군의 삶과 업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 김개남 장군의 고택터와 생가터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계획주민과 대화의 시간 가져

부안 계획면은 지난 18일 계획면 종합복지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사회단체장 및 지도자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의 생생소통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생생소통의 대화는 장학금 기탁식을 시작으로 면정주요 업무보고, 군정비전공유, 주민과의 생생소통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계획면장(위영복)은 2022년 면민이 더불어 잘사는 지속가능한 계획실현을 비전으로 계획면의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미래부안을 슬로건으로 2022년 군정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 후



면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 받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계획면 계획역사지 농어촌도로(305호)포장공사 등 사업장 6개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